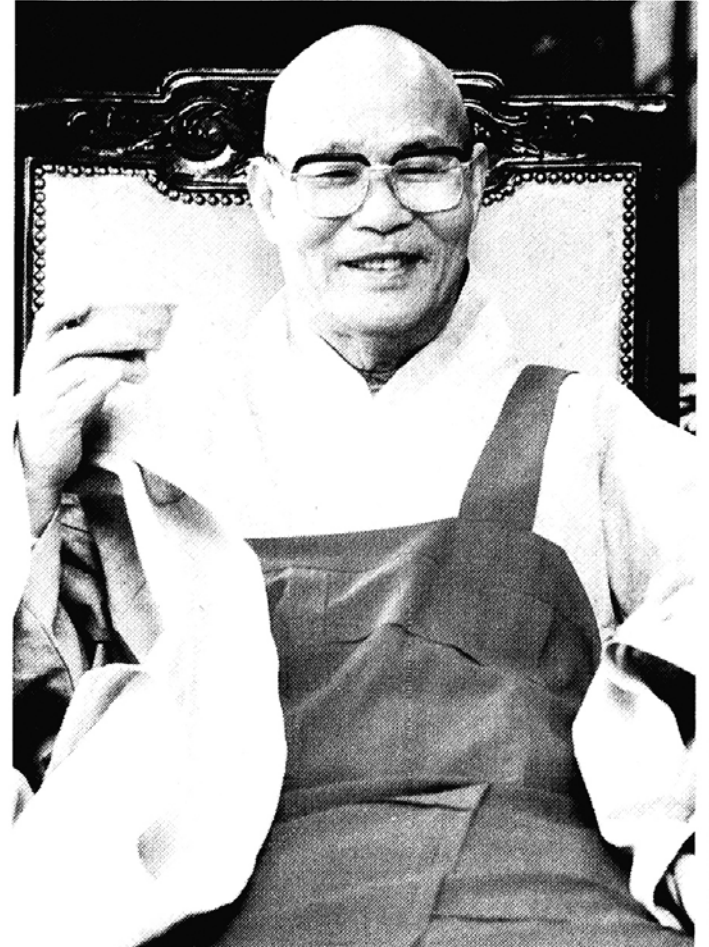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남의 허물을 탓하기 보다

녹원스님 (직지사 주지)



- 1928년 경남 함천 생
- 41년 탄옹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 46년 강원 대교과 출
- 46년 탄옹스님 계사로 비구계
- 58~84년 직지사 주지
- 76년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 84~86년 조계종 총무원장
- 85년 스리랑카 국립푸리베다대학 명예철학박사
- 92년 일본 다이쇼 대학 명예문학박사
- 현재 동국학원 이사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은사이신 탄옹스님은 말보다 행이 먼저였고 하심과 과묵을 강조 하셨죠”

답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가 오늘날 화두가 되었지요. 21세기를 맞이해서는 물질문명에 의지해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내면세계로 찾아나서야겠다 하는 비판이 일어났어요. 이걸 표면적으로 얘기해서는 문화의 세기가 열린다고 하는데 문화의 세기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예요.

부처님은 불비니돈산에서 탄생직후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을 선언하셨어요.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내가 가장 홀로 높다. 이것은 생명의 본질보다 더 신비한 것은 없고 생명의 근

원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아심경>에서는 불생불멸이라고 했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꺼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생명의 원초적인 본질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부처님은 3천년 전에 이미 우주에 성주괴공(成住壞空)이었다고 설교하셨지요. 이루어져서 어느 한계까지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파괴되고 그리고 공무(空無)가 된다는 것이지요. 유정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생노병사(生老病死), 낡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⑭

8. 진심은 사의(四儀:경고, 서고, 앉고, 누움, 즉 행동 일체)에 있다(眞心四儀)
或曰前說息妄 未審 但只坐習 息妄前說息妄 未審 但只坐習
息妄前說息妄 未審 但只坐習 亦通行住等耶
역통행주등야
曰經論 多說坐習 所以易成故 亦通行住等 久久漸成純熟故 亦通行住等 久久漸成純熟故
역통행주등 구구정성순숙고

信心增長 速成不退 唯除疑惑 信心增長 速成不退 唯除疑惑
신심증장 속성불퇴 유제의혹 不信 誹謗重罪業障 不信 誹謗重罪業障
불신 비방중죄업장 我慢懈怠如是等人 我慢懈怠如是等人
아만태어시등인 所不能入 據此則通四儀也 所不能入 據此則通四儀也
소 불능입 거차척통사의야

<기신론>에 보면 '지(止:생각을 멈추는 방법)를 닦는 사람은 고요한 곳에서 단정히 앉아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되 호흡에도 의지하지 말고 형색에도 의지하지 말고 공(空)에도 의지하지 말고 지·수·화·풍(地水火風: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인간의 육체나 일체 물질의 원소를 네 가지로 보았을, 여기에 공을 합하면 5대가 되는데 이는 일체의 법을 생성시키는 근원을 뜻함)에도 의지하지 말며 나아가서는 보고 듣고 깨닫는 일에도 의지하지 말며 일체의 모든 생각은 버려야 하되 버린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한다. 이 모든 법은 본래 생각자체가 없으니 생각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마음을 따라서 밖으로 대상을 생각한 뒤에야 마음으로써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음이 만약 밖으로 달려가려 하면 응당

물었다. “앞에서 망상을 권다고 말씀하셨는데, 앉아서만 공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니거나 머물 때에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했다. “여러 경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많이 말한 것은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역시 가거나 머물 때에도 통하는 것이니 오래하다보면 차츰 익혀지기 때문이다.”
起信論云 若修止者 住於靜處 起信論云 若修止者 住於靜處
기신론은 약수지자 주어정처 坐正意 不依氣息 不依形色 坐正意 不依氣息 不依形色
단좌정의 불의기식 불의형색 不依於空 不依地水火風 不依於空 不依地水火風
불의어공 불의지수화풍 乃至不依聞見覺知 乃至不依聞見覺知
내지불의견각지

“일체의 모든 생각은 버려야 하되 버린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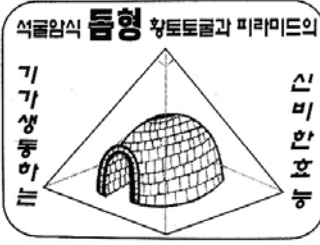
一切諸想 隨念捨除 亦遣除想 一切諸想 隨念捨除 亦遣除想
일체제상 수념제제 역견제상 以一切法 本來無想 念不生 以一切法 本來無想 念不生
이일체법 본래무상 염념불생 念念不滅 亦不得隨心 外念境界後 念念不滅 亦不得隨心 外念境界後
염념불멸 역부득수심 외념경계후 以心除心 心若馳散 即當收來 以心除心 心若馳散 即當收來
이심제심 심약치산 즉당수래 住於正念 是正念者 當知唯心 住於正念 是正念者 當知唯心
주어정념 시정념자 당지유심 無外境界 即復此心 亦無自相 無外境界 即復此心 亦無自相
무외경계 즉부차심 역무자상 念念不可得 若從坐起 去來進止 有所施作 念念不可得 若從坐起 去來進止 有所施作
염념불가득 若從坐起 去來進止 有所施作 若從坐起 去來進止 有所施作
약종좌기 거래진지 유소시작 於一切時 常念方便 隨順觀察 於一切時 常念方便 隨順觀察
어일체시 상념방편 수순관찰 久習純熟 其心得住 以心住故 久習純熟 其心得住 以心住故
구습순숙 기심득주 이심주고 漸漸猛烈 隨順得入 眞如三昧 深伏煩惱 漸漸猛烈 隨順得入 眞如三昧 深伏煩惱
점점정리 隨順得入 眞如三昧 深伏煩惱 隨順得入 眞如三昧 深伏煩惱
수순득입진여삼매 심복번뇌

거두어 들여 바른 생각에 머물도록 하라. 이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오직 이 마음은 바깥 경계란 없는 것이며 역시 이 마음은 모양도 없어서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니라. 만약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고 오고 정진하고 그치는 등 모든 행위를 할 때에 항상 방편을 생각하며 순리에 따라 관찰하되 오래 익혀서 익숙해지면 그 마음이 안주(安住)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안주하게 됨으로써 점점 명명해져서 순리에 따라 진여삼매(眞如三昧:법계가 평등-같이하는 진리를 관조하여 망념을 없애는 삼매)에 들어서 번뇌를 누르고 신심이 더욱 늘어나 물려섬이 없는 지위를 빨리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혹과 불신·비방·중죄(重罪)와 업장(業障)과 아만과 게으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능히 들어갈 수 없으니 제외한다 하였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역시 사의(四儀:경고, 서고, 앉고, 누움, 곧 행동 일체)에 통한다고 할 것이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황토 집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원하시는 평수대로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황토집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 P: 017)585-6045/ 017)566-9969/ 017)582-7116

삼존불 개금불사와 후불탱화 지장원불 봉안법회

삼보에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장기도 도량인 『공덕원』에서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240일 지장기도를 회향하면서 회주 석용산 큰스님을 모시고 “삼존불 개금·후불탱화 불사·지장원불 봉안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사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지장보살님의 기피력이 향상하시기를 발원하면서 봉안법회에 동참하시는 인연으로 업장소멸·인간성숙·소원성취 되는 법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관 일시: 불기 2543년 4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관 장소: 부산공덕원 대법당
관 문의: 대구공덕원 (053)741-0077, 0088
부산공덕원 (051)625-2253, 2254

불교교육회관 공덕원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안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항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예년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월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항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